

사설

중앙박물관 누수,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우리학교 중앙도서관 4층에 누수가 발생했다. 지난 8월부터 노후화된 방수층 교체를 위한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도중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입었다. 해당 층에는 중앙박물관과 경희기록관이 위치해 있어 유물과 기록자료의 보존 측면에서 우려된다.

누수를 인지한 이후 중앙도서관은 4층 중앙박물관과 경희기록관, 제4열람실 이용을 통제했다. 천장 텍스가 일부 젖어 떨어진 채 양동기와 비닐로 물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다. 비록 박물관과 기록관 측은 “중요한 유물 등은 미리 안전한 곳에 옮겨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물이 새는 복도 한가운데 양동기가 놓인 모습을 미루어 보건대, 과연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열람실에까지 미세하나마 누수가 발생했으니 말이다.

중앙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다. 우리학교 중앙박물관

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 학술 연구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문 기관이다. 경희기록관 역시 학내 역사와 운영의 흐름을 기록하는 중요한 보존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상징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유물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려운 자산이다. 대학 구성원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문화·학술적 자산이 위협받는 것이다.

누수의 원인은 명확했다. 기존 방수층을 제거한 직후, 호우가 내렸고 마감되지 않은 옥상층을 통해 빗물이 내부로 유입됐다. 시기적으로 불가항력의 측면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전 대비는 적절했는가’, ‘유관부서와 소통은 잘 이뤄졌는가’라는 의문은 지울 수 없다.

총무관리처장은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짚었다. 각 시설 관리자가 상이해 공지를 전달하는데

“

전반적인 시설 점검과 함께 사전 대비, 위험 예측, 소통 체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

”

한계가 있었으며 충분한 대면 소통이 부족했다고 했다. 공사 일정, 방식, 예상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을 미리 긴밀하게 공유하고 협의했다면 보다 적극적인 사전 대응

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도서관 측은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정비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유관 부서 간의 협의 체계, 주요 시설 담당자와 공사 담당 부서의 협의 매뉴얼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 공사 경우 시설 이용자와의 대면 소통을 활성화해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이번 사고를 비단 중앙도서관에서 벌어진 일회성 사고로 치부해선 안 된다. 이미 몇 년간 교내 주요 건물에서 누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시설 점검과 함께 사전 대비, 위험 예측, 소통 체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길 바란다.

세시봉

슈렉당하지 않는 법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최근 영어권 MZ세대 사이에서 ‘슈렉킹(Shrekking)’이라는 새로운 연애평형이 화두에 올랐다. 외모가 덜 매력적인 사람과 의도적으로 연애하며, 상대방이 외모 콤플렉스를 보상하기 위해 더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슈렉 당했다(Getting Shreked)’는 비아냥거리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 용어는 2001년 개봉한 영화 ‘슈렉(Shrek)’에서 착안됐다. 영화 속 투박한 얼굴의 슈렉이 피오나 공주와 사랑에 빠져 외모로 인한 역경을 견디고 헌신하며 사랑을 쟁취한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외모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감정적 기대치가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겉모습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며 내면과 외면의 가치 판단 충돌 과정에서 ‘슈렉킹’ 현상이 탄생한 것이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능력이자’라는 말이 있듯, 외모를 가꾸는 행위 자체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하지만 외면의 가치가 내면의 가치까지 침범하게 두어선 안 될 일이다.

최근 국내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겉모습에 실망하고 스스로를 폄하하는 현상도 보인다. 대학경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10개권 대학생의 93%가 ‘외모가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47%는 ‘자신의 외모가 인생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씁쓸한 현실이다.

국내에 성행하고 있는 사전 면접을 거쳐 외모기준을 통과해야 입장 가능한 주점이나, 외모가 매력적인 젊은 남녀가 등장하는 ‘솔로지옥’,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그램의 흥행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스스로를 슈렉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모지상주의를 더욱 키우는 건 남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꿈꿨던 숨어 있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다. 때문에 슈렉 당하지 않는 마땅한 묘수란 없다. 다만 스스로가 슈렉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작은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슈렉이더라도 괜찮다. 슈렉에게도 피오나 공주가 있지 않았나.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제휴 수익금에 대한 세칙 제정

명확한 세칙, 투명한 재정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도 업체의 지원금은 제휴 계약을 진행한 회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단과대 학생회’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적인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학생 자치 임원의 인식이 투명성에 대한 일반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례로 기록될 일이었다. 그 배경에는 관련 세칙의 부재가 있었고, 국제캠 중운위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제휴수익금 운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세칙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 같은 사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 기구 임원의 공적 재정 운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련 세칙 제정은 구성원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비밀 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체 학생회 수익금을 재정 구분 없이 결산하고 있는 문과대학 학생회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총학생회가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 운용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지켜보도록 하자.



만평 비밀 유지 조항에 가려진 제휴 수익금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장 하시언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